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붙어라! 떨어져라!

나이 유아 (3~5세)

주제

- **목표** : 착하고 성실한 총각은 복을 받고 욕심 많은 영감은 벌을 받는 교훈을 생각해 본다.
- **주제** : 권선징악

핵심어 권선징악, 돛자리, 전통 혼례, 부적, 잔치

한국문화

- **목표** : 한국의 돛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돛자리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알아본다.
- **요소** : 돛자리

한국어

- **목표** : 붙을 '접'자와 떨어질 '락'자가 포함된 단어를 알아본다.
- **단어** : 접착, 면접, 탈락, 낙엽
- **표현** : 접착제로 붙였어요. 낙엽이 떨어져요.





인사 나누기

배꼽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붙어라! 떨어져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석을 본 적이 있지요? 자석은 쇠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쇠가 딱 달라붙어요. 사람이 자석처럼 서로 붙는다면 어떨 것 같나요? 할머니 생각에는 좋은 사람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할 것 같지만, 불편한 점도 많을 듯해요. 그럼, 여러 사람이 줄줄이 붙어 버린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붙어라! 떨어져라!'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 형제도 없이 외롭게 사는 총각이 있었어요. 총각은 욕심 많은 주인 영감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주인 영감은 늘 총각에게 없던 일도 찾아서 더 시켰어요. 하지만 마음 착한 총각은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해주었어요.

어느 날 총각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겨우 밥을 먹으려고 할 때였어요.

“이놈아, 밥 먹기 전에 먼저 외양간부터 치우고 여물도 썰어 놓아라!”

주인 영감은 총각에게 일만 시킬 뿐, 밥 먹는 것도 아까워했어요. 총각은 너무 속상했지요.

“영감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이 집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 말에 주인 영감은 화를 내며 총각을 쫓아냈어요. 그동안 일했던 돈도 주지 않고 말이에요. 그 후 총각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돛자리를 팔러 다니는 돛자리 장수가 되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하루는 총각이 돛자리를 팔러 다니다가 깊은 산중에서 날이 저물고 말았어요. 총각은 할 수 없이 무덤 옆에 돛자리를 세워 바람막이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지요. 한참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어요.

“여보게! 오늘 우리 집에서 잔치하는데, 함께 가지 않겠나?”

“아닐세. 지금 손님이 오셔서 난 못 가겠네. 자네나 가서 많이 먹고 오게.”

이건 총각이 돛자리를 세워 놓은 무덤 속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총각은 너무 무서워 아무 말도 못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여보시오! 나그네 양반, 정말 고맙소. 내가 죽은 이후로 아무도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외로웠소. 그런데 오늘 밤 당신이 찾아와 내가 춥다고 돛자리로 바람막이까지 만들어 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모르겠소. 내가 줄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으니 이걸 가지고 가시오.” 하며 ‘불을 접(接)’자와 ‘떨어질 락(落)’자가 적힌 종이를 두 장 주었어요.

“‘불을 접’자를 만지면서 ‘붙어라!’ 하면 무엇이나 붙고, ‘떨어질 락’자를 만지면서 ‘떨어져라!’ 하면 무엇이나 떨어진다고요.”



이야기 들려주기

아침에 잠이 깬 총각은 어젯밤 일이 꼭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돛자리를 세워 놓았던 무덤 옆에 글씨가 적힌 종이 두 장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생각한 총각은 그 종이를 가지고 다시 돛자리를 팔러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 우연히 전에 머슴살이하던 주인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침 그날은 주인 영감 딸의 혼인 잔치날이었어요.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모여 떡이랑 고기랑 맛난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즐기고 있었지요. 그런데 욕심 많은 주인 영감은 오랜만에 온 총각을 보고도 본 척도 하지 않고, 밥 한 그릇도 주지 않았어요.

“너무하군! 두고 보자.”

총각은 주인 영감의 딸과 신랑을 보고, ‘붙을 접(接)’자가 적힌 종이를 만지면서 말했지요.

“붙어라!”

그러자 주인 영감의 딸과 신랑이 딱 붙어버렸어요. 깜짝 놀란 주인 영감의 부인이 달려가 둘을 떼어 내려고 했어요. 총각은 슬며시 또 종이를 만지면서 말했지요.



이야기 들려주기

“붙어라!”

이번엔 주인 영감의 부인도 딸과 딱 붙어버렸어요. 그러자 난리가 났어요. 주인 영감의 딸과 부인을 떼어 내 보겠다고 하인, 이웃집 할머니, 친척들이 나섰어요. 그럴 때마다 총각이 종이를 만지면서 “붙어라!”, “붙어라!”, “붙어라!”라고 했지요. 나중에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까지 모두 붙어버려 길게 줄을 썼어요.

“에쿠 에쿠, 아이고 아이고, 깨갱 깨갱!”

다급해진 욕심쟁이 주인 영감이 말했어요.

“누구든지 내 딸과 부인을 떼어 내 주기만 한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총각은 얼른 ‘떨어질 락(落)’자가 써진 종이를 만지면서 말했어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그러자, 붙어 있던 사람들이 탁! 탁! 탁! 제각각 떨어져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놀라서 정신없는 강아지는 냉큼 문밖으로 달아났고요.



이야기 들려주기

혼이 난 주인 영감은 두말없이 총각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총각은 그 돈으로 조그만 집도 짓고, 마음 착한 색시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총각은 무덤 속 할아버지가 준 종이 두 장을 가지고 주인 영감을 찾아가 무슨 말을 했나요?

네, '붙어라!', '떨어져라!'였어요. 그 종이에에는 '붙을 접'자와 '떨어질 락'자가 적혀 있었지요. 친구들도 같이 한번 해 볼까요? 할머니가 '붙을 접'자를 들면 '붙어라!'(양 손바닥을 붙이며), '떨어질 락'자를 들면 '떨어져라!'(양 손바닥을 떼며)라고 총각처럼 해봐요. (붙을 접) "붙어라!", (떨어질 락) "떨어져라!" 네, 참 잘했어요.

여러분, 총각은 머슴살이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이었나요?

네, 돛자리를 팔러 다니는 돛자리 장수였지요. 돛자리는 왕골이라는 풀을 잘게 쪼개어 짠 것을 말해요. 옛날에는 돛자리를 짜서 팔았는데, 사람들이 앉거나 바닥에 깔기 위해 많이 필요했대요. 돛자리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붙어라! 떨어져라!’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실하고 착한 총각이 욕심 많은 주인 영감에게 쫓겨나 돛자리 장수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나요? 총각은 무덤 옆에서 신기한 종이 두 장을 얻었어요. ‘붙을 접’자가 적힌 종이를 만지면서 ‘붙어라!’ 하면 뭐든지 달라붙고, ‘떨어질 락’자가 적힌 종이를 만지면서 ‘떨어져라!’ 하면 뭐든지 떨어졌지요. 두 장의 종이로 총각은 주인 영감을 혼내 주고 재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후, 총각은 집도 짓고 마음씨 착한 색시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